

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 현판식 개최

- 박성재 장관 ‘교정현장의 컨트롤타워로서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의 역할 강조’ -

- 법무부는 2024. 9. 4.(수) 16시 실시간 상황관리 및 전국 교정시설 총괄 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신설한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의 현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수용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관제하던 교정스마트관제센터*를 교정본부로 이전 ‘교정본부 종합상황실’로 확대·개편하여 24시간 365일 실시간 상황관리 및 대응 가능한 ‘교정 통합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 '17. 11.부터 서울동부구치소 내에 설치·운영하였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수용자만 관제 가능하여 대상의 제한성 및 교정본부(정부과천청사 1동)와 물리적인 거리(약 16km, 50분 소요) 등으로 인해 실시간 상황관리에 취약
 - ** 교정시설 외부에서 발생하는 도주사고 등을 예방하고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 및 지휘를 위해 상황관리업무(소속기관 직원 및 수용자 현황관리)와 관제업무(위치추적, 웹캠 등)를 총괄하는 시스템 구축
- 앞으로 법무부는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에 네트워크 바디캠* 도입을 통해 계호취약 수용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공공 CCTV와 연계**하여 도주 등 교정사고 발생 시 실시간 즉각적인 대응으로 신속한 사고 해결에 힘쓸 예정입니다.

* 교정시설 외부에 나가 있는 수용자 대상 실시간 영상계호장비

** 국토교통부 산하 스마트도시협회 주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CCTV와 공공기관 간의 연계

□ 박성재 장관은 현판식에서 “현장에서 IT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교정 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적 역량을 교정교화에 집중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이 교정현장의 컨트롤 타워로서 경찰·소방 등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합상황실이 되길 희망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법무부 교정 통합 관제시스템

통합 영상 관제시스템		통합 위치추적 관제시스템	
외부의료시설 입원·진료 관제시스템	외부직업 및 기능대회 관제시스템	호송 차량 위치추적 관제시스템	위치추적장치 관제시스템
· 고성능 웹캠 · 네트워크 바디캠	· 네트워크 바디캠	· GPS반차량위치추적 · 차량용 웹캠	· 전자발찌 위치추적

담당 부서	교정본부 보안과	책임자	과 장	양원동 (02-2110-3450)
		담당자	교정관	문준영 (02-2110-3841)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